

# 韓中 新文學의 文學改良運動과 外國文學 受容의 比較

俞載星\*

## 目次

- I. 들어가는 말
- II. 歷史的 背景 및 文學改良運動의 比較
- III. 外國文學 受容의 比較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한중 양국은 인접한 국가로 고대부터 많은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밀접하게 해오고 있다. 한국 고대문학을 보면, 많은 곳에서 중국문학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고대문학 연구자 중에서 특히 한국의 고대문학 연구자들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고찰을 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sup>1)</sup>

19세기 이후부터 선진 서방열강의 문화가 아시아 각국에 전파됨에 따라 한중 양국도 자기 국가의 부강을 위해 경쟁적으로 서방의 선진 학술과 기술 이론을 받아들인 반면, 양국의 문화적 교류는 점점 소원해 졌으며, 서방을 배우려는 기운은 날로 흥성해졌다. 19세기 말 서방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받으며 1910년부터 36년간 강제 점령당했으며, 반봉건 반식민지 상태에 빠져있던 중국은 군벌전쟁·국공전쟁·항일전쟁

\* 嶺南外國語大學 中國語科 助教授 yjs0176@hanmail.net

1) 全光鏞, 「百年來 韓中文學 交流考」, 『비교문학』제5집(1980), 5~22쪽.

등을 겪었다. 또한 한중 양국은 비슷한 시기에 공산주의도 생성되어 사상적인 충돌을 겪었다. 위의 간단한 예를 보아도 한중 양국의 근현대는 유사한 점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양국이 당시 비극적인 역사를 겪으면서 출현한 공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한중 양국의 문학사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점을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문학운동의 발생, 문학단체의 생성 및 주장, 문학사조의 출현, 좌익문학과 향전문학의 탄생 등이 그것이다. 문학적인 면에서 보면, 20세기 초 한중 양국에서 발생한 신문학운동(新文學運動)은 양국이 서방의 민주와 과학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개된 하나의 혁명적인 운동이다. 한중 양국은 모두 언문일치(言文一致)와 민중계몽(民衆啓蒙)을 목적으로 신문학운동을 전개했는데, 이점이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납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비록 한중 양국의 신문학이 상대방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신문학의 생성 발전 과정 및 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문학(比較文學) 연구방법으로 한중 양국의 신문학을 고찰한다면, 양국의 신문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동양문학의 보편성을 찾고 서양문학이 바로 세계문학이라는 편견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분명 일정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더욱 폭넓게 비교문학의 연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평행비교(平行比較)의 연구방법을 운용해서 동양문학간 비교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 비교문학 연구를 보면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문학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세계문학의 보편적인 이론수립에 이르는 것이 한국에서 하는 비교문학연구의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관계의 논증을 비교문학의 가장 긴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중략 ... 이제 방향을 바꾸어, 한국문학과 직접 접촉이 없는 여러 나라의 문학까지 가능한 대로 널리 거론하면서, 한국문학연구에서 얻는 성과가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얼마나 지니는지, 문학 일반이론수립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힘써 따져야 하겠다.<sup>2)</sup>

2) 조동일, 「비교문학의 방향전환 서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한국 : 지식산업사,

위의 주장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연구의 방법을 더욱 많이 운용해야 한다. 특히 영향비교(影響比較)가 아닌 평행비교(平行比較)의 연구 방법을 운용해서 동양문학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자기 나라의 문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양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유럽 중심의 편견을 바로잡고”<sup>3)</sup>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중국 비교문학의 연구영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동양문학의 범주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동양문학과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탐색하고, 과거 서양 중심의 세계문학이라는 편견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의 樂黛云(러파이윈)도 비교문학을 설명할 때, 비교문학은 중국문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경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뛰어난 고대와 현대 문학은 마땅히 세계문학 보고중의 찬란한 보물이 진정으로 되어 세계인이 향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내용이 풍부한 전통문학 이론은 세계가 찾고 있는 문학이론의 종합구도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새로운 문학이론이 만약 다채로운 중국문학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편파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비교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야 하며, 비교하는 중에서 우리나라 문학과 다른 나라 문학의 차이와 같은 점을 연구하여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sup>4)</sup>

1992), 제9쪽.

3) 纠正过去欧洲中心的偏颇(季羨林, <中韩比较文学年鉴·前言>, 《中国比较文学年鉴》(중국: 北京大学出版社, 1987), 제5쪽)

4) 中国辉煌的古代和当代文学应该真正成为世界文学宝库中的灿烂瑰宝而为世界人民所共享; 我国历史悠久、内容丰富的传统文学理论应该成为世界正在寻求的文学理论综合架构的重要组成部分; 任何新的文学理论如果不能解释瑰丽多彩的中国文学现象就应该说是跛脚的。要做到这一切, 就必须通过比较与世界沟通, 在比较中研究我国文学与外国文学的殊异和类同, 以世界所能接受的方法呈现自己。(乐黛云, <比较文学的名与实>, 《比较文学原理》(중국: 湖南文艺出版社, 1988), 제7쪽)

상술의 이론은 한국 조동일의 주장과 아주 유사하다. 그들은 모두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정립할 때, 반드시 자기국가의 문학과 타국의 문학을 상호 비교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이론에 정립하여 평행비교분석의 연구방법으로 사실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한중 양국의 신문학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교문학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동양문학과 세계문학을 파악할 수 있고, 동양문학이 시종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고 발전했다는 관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동양문학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양국의 현대문학발전사를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신문학운동, 문학단체의 탄생과 그 주장, 문학사조의 출현, 좌익문학의 생성과 항전문학의 탄생 등등이 있다. 비록 이런 현상들은 모두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연구범주의 제한에 따라 본고는 양국 신문학운동을 탐구 대상으로 정했다. 구문학을 반대하며 신문학을 제창하고, 문언문을 반대하며 구어체 사용을 주장한 양국의 신문학운동중에서 우선적으로 역사적 배경 및 그 운동의 기초가 된 문학개량운동(文學改良運動)과 외국문학의 수용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 II. 歴史的 背景 및 文學改良運動의 比較

한중 양국의 신문학운동(新文學運動)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필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이 운동은 국내외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경제·문화의 역사적인 근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문학운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잘 알다시피 19세기는 아시아의 비극시대이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은 자기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아시

아를 침입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는 줄지에 서방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해 버렸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도 아주 비슷한 역사를 겪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방 열강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었다. 또한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 1. 韓國의 歷史的 背景 및 開化期文學運動

19세기 말 서양 열강은 이미 여러 차례 조선과 통상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매번 완강히 거절하며 쇄국정책을 실시했다. 왜냐하면 조선 정부의 집정자들은 이미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후 맞이한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은 아주 빠르게 서방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학습해 군국주의의 근대국가로 변모했다. 그 뒤 대륙을 침략하기 위하여 조선의 정치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조선 개화파 인사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대원군(大院君)이 민비(閔妃)와 유림학자(儒林學者)에 의해 실정을 당했을 때, 일본은 아주 빠르게 무력을 사용해 조선과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1876년)을 맺고 개항시켰다. “병자수호조약”은 굳게 닫혔던 조선의 문호를 열었고 일본에게 조선을 선점하는 우선권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개항과 개방이 곧 조선을 식민지화한다는 생각한 유림학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대원군을 새롭게 추대했다. 그 후 민비를 주축으로 한 일파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일파 간에 부단한 투쟁이 전개되면서 조선의 정국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갑신정변(甲申政變)(1884년)·갑오경장(甲午更張)(1894년) 등을 겪으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었고, 동학난(東學亂)(1894년)과 청일전쟁(1894~95년)의 결과로 수 백년 동안 한국에 대한 중국 청나라의 영향력은 일시에 쇠퇴해 버렸다. 바로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는 서방 열강 중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러일전쟁(1905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과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1905년)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동진정책을 막았다. 마침내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내외외환을 겪게 됨에 따라 자국의 독립과 부강을 위해 서방 자본주의의 정치·문화와 선진 기술 및 학술 도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근대 의식의 생성과 민족의식의 각성이란 전제하에 진행되어 내려왔다.

한국이 개화(開化)를 급속도로 진행한 것은 “갑오경장”이후의 일이다. 갑오경장은 한국근대사의 커다란 이정표로서 비록 일본의 강압 하에 진행된 개혁이었지만, 한국 자체의 근대화적인 각성과 반성의 시작이었다. 또한 1895년 유길준(兪吉濬)은 현대적인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발표했다. 이 책은 유럽과 미국의 역사·지리·상업·정치·풍속·문화·예술 등을 폭넓게 소개해 대외적인 관심과 근대화의 각성을 이끌어냈다. 다음해 서재필(徐載弼)과 윤치호(尹致昊)는 한국 최초의 순한글 근대화신문인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발간했다. 이어서 많은 신문·잡지가 발간되었으며 신식교육 기관도 탄생했다. 이것은 “甲午更張의 文化的인 一表現으로서 그 當時 民衆들의 近代的인 覺醒과 그 熱誠을 代辯해 주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絶望的인 方向으로 進行되어가는 政治現實속에서 祖國의 危機를 警告하고 獨立을 守護하려는 國民精神의 一表現이기도 했던 것이다.”<sup>5)</sup> 이런 활발한 문화계몽운동은 근대문학의 태동으로 “개화기문학(開化期文學)”을 출현시켰다. 이것은 갑오경장에서 한일합방까지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출현한 문학이다. “창가(唱歌)”·“신소설(新小說)”·“신파극(新派劇)” 등으로 대표되는 문학예술운동으로 고전문학과 신문학사이의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 “개화기문학”의 주제는 자주독립·자유민권·신교육·미신타파·과학지식 보급·자유연애·자유혼인·평등사상 등으로 고전문학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단지 신문학의 선구적인 위치만을 점했을 뿐이다. 개화기문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가(唱歌)”의 출현이다. “창가”는 갑오경장이후 근대적인 각성과 조국의 자주독립의 염원을 창가조의 음율로 읊은 시가형식으로 개화시가 발

5)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한국 : 成文閣, 1969), 제35쪽.

전해서 형성된 새로운 시가형식이다. 개화시는 가사가 주가된 반면, “창가”는 노래가 중심이 된 것이다. 1896년 『독립신문』에 발표된 20여 수 작품은 “4·4조”의 형식이 차츰 “7·5조” 혹은 “8·6조” 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초의 “창가”는 대부분 애국·자주독립·남녀평등·계급타파·신교육 등으로 선전하는 개화계몽으로 그 제목도 「애국가(愛國歌)」·「우국가(憂國歌)」·「자주독립가(自主獨立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후 최남선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 창작한 「경부선철도가」·「세계일주가」·「한양가」 등은 대부분 자연풍물·사회생활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으며 또한 장편시가 형태로 변했다. “창가”는 고전시가가 신체시(新體詩)로 발전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국 근대문학사상 일정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둘째, “신소설(新小說)”의 출현이다. “신소설”은 “계몽소설(啓蒙小說)”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계몽문학의 일종이다. 당시 한국의 개화파인사는 서방의 민주·자유·평등의 신사상을 받아들이고 신교육을 제창하고 애국적인 신문화로 국민을 계몽하고자 했다. 이런 소설은 고전문학에서 서방식 현대소설 작업을 도입하는 과도기적 소설형식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명개화와 문화계몽을 역사적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현실에서 소재를 찾아 자주독립·인간평등·민주사상·교육현실·혼인자유·남녀평등·미신타파·정치개혁 등 근대적인 신문명 사조를 주제로 삼았다. 이것은 한국문학사상 독립된 문학형식의 독특한 명칭이다. “신소설”의 흥망은 대략 20년 정도이다. 1900년 초 신소설초기 작품의 발표에서 1917년 이광수(李光洙)의 「무정(無情)」이 발표될 때까지이다. 1910년 한국이 일본에 강제 점령된 뒤 “신소설”의 창작도 시들해졌다. “신소설” 작가도 양분되었다. 어떤 작가는 변절하여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에 참가했고, 어떤 이는 일본 강제 침략에 반대하며 항일의 태도를 굳건하게 지켰다. 하여간 “신소설”은 현대소설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신소설” 작품은 아주 다양했다. 창작된 것도 있었고 번역된 것도 있었으며 구소설을 개작한 것도 있었다. 상당히 많은 신소설 중에서 진정으로 신소설의 특징을 내포하고 순수한 창작물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은 단지 10여 편 밖에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인직(李人植)의 「혈의 루」·「치악산」·「은세계」·「귀의 성」, 이해조(李海潮)의 「자유종(自由鐘)」·「춘외춘(春外春)」·「빈상설(鬢上雪)」·「모란병」, 구연학(具然學)의 「설중매화」, 김교제(金敎濟)의 「顯微鏡」, 최찬식(崔瓚植)의 「秋月色」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의 “언문일치”의 주장이다. 이것은 중국의 “백화운동(白話運動)”에 해당된다. 1446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기 이전까지 한국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문학사상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갑오경장이전까지만 해도 양반(兩班)을 포함한 지식층은 여전히 한문을 주(主)로하고 국문을 종(從)으로 삼는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국문 사용을 등한시하였다. 19세기 말 서방사회의 문화가 차츰 도입되면서 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한문혼용체의 언문일치”주장이 제기 되었고 마침내 갑오경장의 다음해인 1895년 한국 최초의 국한문혼용체의 언문일치 문장인 유길준(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과 최초의 한글 번역서인 『옥류열전(Arabian Nights)』과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면서 “국한문혼용체의 언문일치”의 사용이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동시에 당시 발간되던 신문과 잡지도 대부분 언문일치와 국한문혼용체 혹은 순한글문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급 학교에서도 정식으로 한글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은 중국의 백화문운동이 무형중에 신문학운동에 영향을 준 것처럼 한국의 신문학 탄생에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고 하겠다.

## 2. 中國의 歷史的 背景 및 文學改良運動

1840년 아편전쟁(阿片戰爭)이후 중국은 서방열강의 대포와 저렴한 상품의 해 군계 닫았던 문호를 열 수밖에 없었다. 봉건사회의 중국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바로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중국



청나라는 제국주의가 발동한 제2차 아편전쟁(1856년~1860년)· 청일전쟁(1894년)· 8국연합국전쟁(1900년) 등에서 수차례 패배를 맞보고 심지어 국가 존폐의 위기까지도 느꼈다. 따라서 근대 중국의 지식분자들은 차츰 민족문화의 각도에서 아편전쟁· 청일전쟁 등 실패의 역사적 교훈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전면적인 문화적인 반성을 통해 서방으로부터 중국을 개혁하는 출로를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 열강의 군사적 무력 앞에서 무기력해진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曾國藩(정국판)· 李鴻章(리홍장) 등과 같이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양무파(洋務派) 지식분자들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제창하며 봉건통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공업을 배우자고 했다. 그들은 정치제도와 윤리도덕의 개혁을 무시한채 물질적인 기술적인 낙후만을 개혁하자고 중시했다. 바꾸어 말하면, 양무파는 전통적인 봉건제도의 기초 위에 근대적인 군사와 공업을 발전시키자 기도했던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제창하던 양무파의 문화적인 사상은 기본적으로 끝나고, 사상과 이념 등 정신적 방면의 유신을 주장하는 유신파(維新派) 지식분자가 정식으로 출현했다. 정치적 유신을 중심으로 한 유신파는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의 개량주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회 문물도 배우고자 했다.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康有爲(강요우웨이)· 梁啓超(량치차오)· 嚴復(이엔푸)· 譚嗣同(탄스통) 등으로 대부분 자본주의 색채를 띤 봉건 문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백성들의 “개통민지(開通民智)”를 중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양무파 인사들보다 문학· 예술의 선전 효과를 더욱 중시했고 교육보급의 중요성 또한 인식했다. 그들은 문언문이 교육보급의 주된 장애물로 생각하는 동시에 문언문을 도구로 하는 고전문학(古典文學)이 현대사상과 생활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문학과 문자를 개량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진실되게 말하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생존 근거(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등등)가 이미 큰 변화를 겪었다. 관념 형태의 문

학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 자연스럽게 변화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언어도 포함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문제의 두 가지 방면이기 때문이다.”<sup>6)</sup> 이런 변화는 만청(晚淸)의 문학개량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만청의 문학개량운동은 당시 사회적으로 개량주의의 유신사상과 상응되는 것으로 자본계급의 개량주의 사상이 문학관념상에서 반영된 것이다.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표현되었다.

첫째, “詩界革命”이다. 이것은 1896년과 1897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譚嗣同·夏曾佑(사정요우)·黃遵憲(황준시엔) 등이 제창했다. 이것은 당시 봉건적인 문체인 “동광체(同光體)”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용면에서 자산계급 개량파의 애국 사상과 민주 사상의 반영을 요구했고, 예술면에서는 고인(古人)의 답습과 모방을 반대했다. 黃遵憲은 “내 손은 내 입을 쓴다”<sup>7)</sup>고 주장하면서 구체시의 답습을 반대했다. 詩界革命은 당시 내용이 공허하고 언어가 난해한 봉건적인 시가를 반대하고 구격율의 속박을 타파하고 창작의 제재를 확대하고 새로운 형식을 탐색하며 새로운 시체인 “신파시(新派詩)”를 생산했다. 1902년에서 1904년사이 《新民總報》의 시 게재란인 <詩界潮音集>에 500여 수의 신파시가 발표되었다. 신파시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으로는 黃遵憲의 <軍歌>·<幼稚園上學歌>, 康有爲의 <愛國歌>, 梁啓超의 <老未酬>, 林紓(린수)의 <閩中新樂府>등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어느 정도 구체시의 속박을 타파했고 표현력을 제고했으며 중국 백성이 요구하는 민주와 민족독립에 부응했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가영역에서 하나의 새로운 번성을 조성했으며 “詩界革命”의 발전을 촉진해 신문학운동과 신시의 제창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6) 认真地說，不變也不行，因為國家賴以生存的根基(經濟的、政治的、社會的，等等)已經發生了深刻的變化，作為觀念形態的文學，面對新的現實必然發生變化。這種變化不只包括內容，也包括形式和語言，因為這是一個問題的兩的方面。(郭志剛等，《中國現代文學史》(上)(中國：高等教育出版社，1993)，第77頁。)

7) 我手寫我口(黃遵憲，《雜感》)

둘째, “小說界革命”이다. 당시 몇몇 자산계급 지식층은 소설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梁啓超는 소설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소설을 사회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을 계몽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생각했다. 梁啓超는 <論小說與群治之關係>에서 “금일 群治를 개량하려고 하면 반드시 소설계혁명에서 시작해야 한다. 新民 하려면 반드시 新小說에서 시작해야 한다”<sup>8)</sup>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小說界革命”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20세기 초 아주 빠르게 전에 없었던 소설창작과 소설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 창작은 번성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작품은 통계에 의하면 1천여 종이나 된다. 그 중에서 李伯元(리바이위엔)의 《官場現形記》, 吳趸人(우치엔런)의 《二十年目睹之怪現狀》, 劉鶚(리요우어)의 《老殘遊記》 및 曾朴(정푸)의 《孽海花》 등 이 뛰어난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은 대부분 과장과 풍자의 수법으로 당시 사회현실의 추악한 면을 폭로했다. 따라서 魯迅(루쑤)은 일찍이 이런 소설을 가리켜 “譴責小說”이라고 했다. “小說界革命”은 중국소설사상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으며, 어느 정도 당시 사회의 본질을 반영했고 봉건전제 통치의 죄악을 폭로했으며 중국문학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이후의 문학창작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셋째, “新文體”이다. 무술변법(戊戌變法)의 실패이후 梁啓超는 일본으로 도망친 후 《清議報》의 편집을 맡았다. 1902년부터 《新民總報》·《新小說》 등 잡지를 책임 출판하면서 개량주의와 애국주의 선전에 힘을 썼다. 이때 그는 서방 사상을 표현하는 일본 신문과 잡지가 표현하는 문체의 영향을 받았고 동성파(桐城派)의 고문(古文)을 반대했으며 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新文體”의 사용을 제창했다. 그는 이런 문체를 사용해 <少年中國說>·<新民說> 등의 문장을 써서 산문의 선전적 교육효과를 발휘해 청년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新文體”는 문언문이 백화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문체로

8) 今日欲改良群治, 必自小說界革命始; 欲新民, 必自新小說始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新小說》第1卷第1期, 1902)

전통적인 고문(古文)에 맹렬히 공격을 가하면서 신문학운동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넷째, 백화문운동(白話文運動)이다. 1895년 청일전쟁 패배이후 중국의 “일반인은 큰 꿈에서 막 깬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강한 원인을 알았습니다. 바로 교육의 보급이지 단지 선박의 견고함과 대포의 날카로움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육이 보급된 까닭은 병음문자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자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해서 교육의 기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서 일반 백성의 지식이 낮아 국가의 앞날에 희망이 없게 영향을 끼쳤습니다.”<sup>9)</sup> 1897년 裘廷梁(치유텩량)은 <論白話爲維新之本>을 발표해 “백화문을 숭상하고 문언문을 폐지한다(崇白話而廢文言)”는 주장을 제기했다. 1899년 陳榮袞(천통꾼)은 <論報章宜改用淺說>을 발표해 “문언문이 중국을 망하게 한다(文言文禍亡中國)”고 제기했다. <強學報>·<時務報>·<國聞報> 등 백화문 신문이 계속 발간되었고, 王照(왕자오)·勞乃萱(라오내이) 등이 병음문자의 사용을 제창했다. 백화문운동은 “교육을 위한 것(爲教育的)”으로 백화문을 사용해 “開通民智”의 도구로 삼은 반면, 신문학운동은 “문학을 위한 것(爲文學的)”으로 백화문을 사용해 “문학창작”의 도구로 삼았다. 백화문운동은 자연스럽게 신문학운동을 추진하게 만들었고 적지 않은 역할을 해주었다.

### III. 外國文學 受容의 比較

한중양국의 신문학 탄생과 발전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사회·정치·경제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이것은 자국의 고전문학의 역사적 전통과 아주 밀

9) 一般人如大梦初醒, 才知道人家所以富强的原因, 是由于教普及, 而不单是以船坚炮利胜人; 教育之所以普及, 却又是拼音文字的便利. 我国因文字这工具太笨拙太繁重, 以致教育只作畸形的发展, 一般民智太低, 而影响于国家的前途无振作之望. (梁启超, <论小说与群治之关系>, 前掲书)

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문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중 양국의 근대문학 문단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만약 한중양국의 근현대문학이 서양문학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신문학의 탄생과 발전을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은 반봉건 반식민지사회로 전락함과 동시에 서방 자본주의 열강의 문화가 다량으로 중국에 전파되었다. 중국과 외국문화는 충돌하는 가운데 융화되면서 중국근현대문학이 발전하였다. “날로 심각해지는 민족의 기의 상황 하에서 중외문화의 충돌과 융합하는 형식으로 실현된 중국문화 자신의 발전과 연변은 아편전쟁이후 중국문학이 발전하는 기본적인 특징이며 중국근현대문학 발전의 기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0)</sup> 당시 처한 환경이 중국과 비슷한 한국도 중국과 유사하게 서방 문화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점은 한중양국 문화 발전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양국의 근현대문학 발전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韓國의 外國文學 受容

한국은 항구의 개방이후 날로 일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또한 차츰 구미의 서방 열강과 수교를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서방식 교육기관의 건립과 신문·잡지의 발행 및 유럽문화 관념을 기초로 한 기독교의 전파 등은 서방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을 접촉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은 서방문학작품의 번역 소개였다.

한국 최초로 번역 소개된 서양 작품은 1895년에 번역된 「유옥역전(Arabian Nights)」과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이다. 「유옥역전(Arabian

10) 在日益急迫的民族危机的推动下, 以中外文化撞击与融合的形式实现的中国文化自身的发展和演变, 可说是鸦片战争以后中国文化发展的基本特点, 也是中国近现代文学发展的基本特征(郭志刚等, 《中国现代文学史》(上)(中国: 高等教育出版社, 1993), 제 31~32쪽)

Nights)은 한국인이 번역한 반면,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은 외국인이 번역을 했다. 당시 한글로 번역 소개된 것으로는 『이솝우화』·『걸리버여행기』·『로빈슨표류기』 등의 작품과 『나폴레옹전』·『미국독립사』·『일남망국사』·『이태리 건국 삼걸전』·『헝가리 애국자 噶蘇士전』·『普法戰記』 등의 전기 및 역사서와 梁啓超의 『日本之朝鮮』·『清國戊戌政變記』·『滅國新法論』·『中國魂』·『飲冰室自由書』·『生計學說』 등이 있다. 1910년 일제 강제점령까지 모두 95종이 번역되었다.<sup>11)</sup> 당시 현채(玄采)·최남선·유길준·주시경·장지연 등이 번역작업에 종사했다. 그 가운데 현채와 최남선의 공적이 비교적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작품을 번역할 때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국가의 독립과 민권수호를 위한 공리주의적인 문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번역된 95종의 작품 중 역사나 전기에 관련된 것이 55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번역서는 당시 지식층의 계몽의식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및 독립의식도 고취시키는 작용을 했다. 한편 당시의 번역은 원전을 바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어 혹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중역(重譯)이 많았다. 특히 일본어의 중역이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동양 국가 중에서 일본의 서구 개방이 가장 빨랐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생의 대부분이 일본 유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서방 국가로부터 직접 그들의 사고방식과 제도 등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란 한 국가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적 특징을 내포한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문화와 문학을 등한시할 수 없었다. 이점은 중국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1908년 최남선에 의해 발간된 종합적인 성격의 잡지인 『소년(少年)』은 번역작업의 방면에서 큰 공헌을 했다. 이 잡지는 창간호의 「표지시언(表紙時言)」에서 “活動的進取的發展的 大國民을 養成을 爲하여”라고 창간의 목적을 표명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시대의 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소년』은 신문학 작품을 게재함과 동시에 적지 않은 서방문학 작품을

11)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한국: 乙酉文化社, 1975), 제302~307쪽.

번역 소개했다. 이때 한글로 번역 소개된 작품으로는 『로빈슨표류기』·『톨스토이단편』·『歷史小說ABC』·『품성론(品性論)』등 20여종이 있으며 대부분 편집인인 최남선이 번역했다. 약간 뒤에는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가 많은 작품을 번역 소개했다. 예컨대, 투르게네프(Turgenev, 1818~1883)의 산문시와 롱펠로우(Longfellow, 1807~1882)·에머슨(Emerson, 1803~1882) 등의 소설과 서정시 등이 있다. 또한 장두철(張斗徹)·김안서(金岸曙)·백대진(白大鎭)·이일(李一)·황석우(黃錫禹) 등 많은 사람이 번역 작업에 종사했다.

## 2. 中國의 外國文學 受容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 이후 유신파 인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활동을 통해서 사상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또한 서방 사상가들의 작품을 국내에 번역 소개했다. 사상서의 번역방면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林紓(린수)다. 林紓는 허슬리(Huxley, 1825~1895)의 《天演論》(1898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原富》(1903년), 스펜서(Spenser, 1552~1599)의 《群學肄言》(1903년), 에드워드 쟁크(Edward Jenks, 1861~1939)의 《郡已權界論(A History of Pilitics)》(1903년) 등 여러 종류의 학술명저를 번역 소개했다. 많은 독자들은 林紓의 번역을 통해서 서방 사회의 정치사상을 접촉해 사상적인 계몽을 받았다. 이것은 중국 지식층이 서방 문학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유신파는 양무파보다 문학과 예술의 선진적인 효과를 중시했다. 그들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외국문학 작품을 대량으로 번역 소개했다. 이 방면에서 周桂笙(쨈우웨이성)·王國維(왕귀웨이)·蘇曼殊(수만수)·梁啓超(량치차오) 등이 적지 않은 서방 미학저서와 문학작품을 번역했다. 이런 번역은 딱 막혔던 청년으로 하여금 “歐風美雨”의 세례를 받고 돌연히 깨닫게 만들었다. 어떤 자유·평등·박애·인도주의·개성해방과 무슨 고전주의·낭만주의·현실주의·자연주의 및 각종 문학기법

은 모두 그들의 눈과 귀를 새롭게 만들었다. 따라서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처럼 마구 흡수했다. 새로운 사회정치사상과 윤리도덕관념 및 새로운 문학관은 곧 도래할 신문학시대의 새로운 소설가들에게 사상적 예술적인 영양을 제고했다.”<sup>12)</sup> 이 방면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은 林紓(1852~1924)였다. 그는 문언문으로 외국소설을 번역한 최초의 중국 사람이다. 그는 비록 외국어를 몰랐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1898년부터 프랑스 듀마(Alexandre Dumas fils, 1824~1895)의 《춘희(La Dame aux camélias)》를 시작으로 하여 1919년까지 20여년 동안 170여 작품을 번역했다. 그 중에서 영국작품이 99편, 미국 작품이 20편, 프랑스 작품이 33편, 벨기에 작품이 1편, 러시아 작품이 7편, 스페인 작품이 1편, 노르웨이 작품이 1편, 그리스 작품이 1편, 스위스 작품이 2편, 일본 작품이 1편, 국적 불명의 작품이 5편이 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스토우 부인(Harriet Beecher Stowe, 1811~1896)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Uncle Yom's Cabin)》과 영국의 월터 스코트(Sir Walter Scott, 1771~1832)의 《아이반호(Ivanhoe)》,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1667~1745)의 《걸리버 여행기》 등등이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디킨즈·입센·톨스토이·위고·세르반테스 등의 명작도 있다. 林紓는 “번역하고자하는 작품의 품격을 잘 파악하여 의역의 방식으로 원작의 의미를 적당하게 표현했다. 한때를 풍미했던 ‘임서번역소설’은 아름답고 유창한 필치로 감동있게 작품의 주제를 전달했으며, 서방사회의 사고와 풍습을 전달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sup>13)</sup> 훗날 어떤 학자는 林紓의 번역 작업에 대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높게 평가했다. “① 국민들은 林紓의 번역서를 읽은 후부터

12) 接收了‘歐風美雨’的洗禮, 茅塞頓開 什麼自由、平等、博愛、人道主義、個性解放, 什麼古典主義、浪漫主義、現實主義、自然主義以及種種的文學技法, 都使他們耳目一新, 覺得新鮮, 於是便兼收並蓄, 如飢似渴地吸收 可以說新的社會政治思想、倫理道德觀念和新的文學觀, 為即將到來的新文學時代的小說新人, 提供了思想和藝術養料 (劉中樹, 《五四文學革命運動史論》(中國: 吉林出版社, 1989), 卷119쪽)

13) 善於體會和把握所譯作品的風格, 以意譯的方法恰如其分地表達原作的韻味. 風行一時的‘林譯小說’以其優美流暢的譯筆, 真切動人地傳達了作品的思想感情, 轉述西方的社會思想和風俗習慣, 產生了廣泛的社會影響. (上揭書, 卷120쪽.)



서방문학에도 우수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의 폐쇄를 고집하지 않았다. ② 전대의 사람들은 소설을 대체로 멸시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으나 林紓의 번역서가 유행한 뒤로 소설의 지위가 차츰 제고되었다. ③ 근대 소설가와 번역가의 반 이상은 林紓의 영향을 받았다.”<sup>14)</sup> 종합적으로 보면, 당시 많은 독자들은 “林紓의 번역소설”을 통해서 서방문학을 이해했고, 소설 경시의 전통관념을 타파했으며 소설의 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문학적인 계몽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林紓외에 당시 陳冷血(천령취에)·周桂笙·伍光建(우광지엔) 등도 서양 작품을 번역했고, 魯迅·周作仁(쨌우쨌어런) 형제도 《城外小說集》을 공동으로 번역 출판했다.

#### IV. 나오는 말

한국은 일본과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이후 봉건사회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식민지국가로 전락했고, 중국은 아편전쟁(阿片戰爭)이후 정치·경제가 아주 빠르게 반식민지 상태에 빠졌다. 한중 양국의 지식인들은 모두 낙후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 개량운동을 추진했다. 毛澤東(마쩌둥)의 “일정한 문화는 일정한 사회의 정치·경제의 관념형태상의 반영이다”<sup>15)</sup>란 말처럼 내우외환을 겪고 있었던 한중 양국의 지식분자들은 차츰 서방 자본주의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과 동시에 서방 선진의 기술과 학술을 도입해 자국의 부강을 꾀하였다. 이런 근대의식의 생성과 민족의식의 각성이란 대전제 하에서 한국의 개화기문학운동과 중국의 문학개량운동이 상응하여

14) ① 国人自读林氏译书后, 才知道西方文学中也有杰出的作品, 从此不再固步自封。② 前人对小说大抵存鄙视的观念, 从林氏译书风行以后, 小说地位渐因之提高。③ 近代小说作家, 及翻译家多半曾受有林氏影响。(《钱玄同先生关于语言问题的谈话》, 《文化与教育》第27期, 司马长风, 《中国新文学史(上)》(香港: 昭明出版社, 1975), 제22쪽에서 인용)

15) 一定的文化是一定社会的政治和经济在观念形态上的反映。(毛泽东, 《新民主主义论》, 《毛泽东选集》(중국: 人民出版社, 1964), 제688쪽)

일어났다. 한국은 갑오경장과 일제강점의 시작까지 새로운 시가인 창가와 신소설이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국한문혼용체의 언문일치 주장도 제기되고 실천되었다. 또한 중국도 증체서용을 주축으로한 양무파에 이어 개통민지(開通民智)를 주창한 유신파 인사들에 의해 신파시(新派詩)를 중심으로 한 詩界革命,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小說界革命, 신문체를 주장한 백화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개화기문학운동과 문학개량운동은 뒤에 일어난 신문학운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신문학운동의 발전에 촉진작용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반에 한중 양국에 나타난 신문학운동은 양국에 일찍이 있었던 문학운동과는 질적인 차이가 큰 혁명이며 그 성과 또한 역사적으로 초유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신문학운동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해 양국의 현대문학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신문학운동은 서방문학과 강력히 충돌하면서 또 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으면서 발전했다. “만약 이런 충돌과 영향이 없었다면 신문학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sup>16)</sup> 서방의 사상과 문학 및 이론은 양국 문학가의 번역을 통해서 소개되고 또한 창작과정중의 운용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개와 실천은 당시 신문학 작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문학창작으로 나타났고, 한국 양국의 신문학운동의 탄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방면에 종사했던 사람은 한중 양국 대부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번역 작품의 사회적 효용성을 중시했다. 서양 작품을 번역 소개하는 공적이 비교적 큰 사람을 보면, 한국에서는 최남선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중국에서는 林紓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렇지만 최남선은 林紓만큼 많은 작품을 번역 소개하지는 못했다. 또한 한국의 번역물은 원전이 아닌 일본어 혹은 중국어의 이중번역이 많은 반면, 중국은 대부분 원전에 대한 번역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신문학은 일본의 문화와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부터 한중 양국에 나타난 문학개량운동과 외

16) 没有这种冲击和影响, 新文学不可能产生 (郭志刚等, 《中国现代文学史》(上)(중국: 高等教育出版社, 1993), 제4쪽)

국문학의 수용은 자국의 부강과 독립 및 백성의 계몽이란 목적아래 자연스럽게 생성된 보편적인 현상으로 20세기 초 양국의 신문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반을 준비해준 문학현상이라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王 瑶, 《中国新文学史稿》(上下), 上海文艺出版社, 1982.
- 黄修己, 《中国现代文学发展史》, 北京, 中国青年出版社, 1988.
- 金光镛, 「百年來 韓中文學 交流考」, 『비교문학』(제5집), 한국, 1980.
- 조동일, 「비교문학의 방향전환 서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한국, 지식산업사, 1992.
- 季羨林, 〈中韓比較文學年鑑·前言〉, 《中國比較文學年鑑》, 중국, 北京大學出版社, 1987.
- 乐黛云, 〈比较文学的名与实〉, 《比较文学原理》, 중국, 湖南文艺出版社, 1988.
- 赵演铉, 『韩国现代文学史』, 한국, 成文阁, 1969.
- 郭志刚等, 《中国现代文学史》(上), 중국, 高等教育出版社, 1993.
- 郭志刚 孙中田主编, 《中国现代文学史》(上下),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1993
- 黄遵宪, 《杂感》, 중국.
- 梁启超, 《论小说与群治之关系》, 《新小说》第1卷第1期, 중국, 1902.
- 金秉哲, 『韩国近代翻译文学史研究』, 한국, 乙酉文化社, 1975.
- 刘中树, 《五四文学革命运动史论》, 중국, 吉林出版社, 1989.
- 司马长风, 《中国新文学史(上)》, 홍콩, 昭明出版社, 1975.
- 『青春』장간호, 한국, 1914년10월.
- 胡适, 〈文学改良刍议〉, 《新青年》제2권제5호, 중국, 1917년 1월.
- 陈独秀, 〈文学革命论〉, 《新青年》제2권제6호, 중국, 1917년 12월.
- 胡适, 〈我为什么做白话诗〉, 《新青年》第6卷제5号, 중국, 1919년 5월.
- 毛泽东, 〈新民主主义论〉, 《毛泽东选集》, 중국, 人民出版社, 1964.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ry Reform Movement and Acceptance of  
Foreign Literature in New Literature of Sino-Korea

You, Jae-Su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ry reform movement and acceptance of foreign literature in New Literature of Sino-Korea. Although New Literature in Korea and China hasn't direct evidence sent or received by both countries' influenc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reation of New Literature are very similar to the feature. Korea and China expanded New Literature move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and enlightenment of the public. So if we study New Literature in Korea and China as a comparative literature study, we can more deeply understand New Literature in Korea and China, search for a universality of Oriental literature, and overcome the bias against Western literature which is world literature.

Key Words : New Literature of Sino-Korea, comparative literature study, universality of Oriental literature

투 고 일 : 2010. 5. 10. / 심 사 일 : 2010. 5. 20. ~ 2010. 6. 10. / 게재확정일 : 2010. 6. 15.